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희도 서로
남의 방을
씻기 위하여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
 (2부 선찬양: 187. 비둘기같이)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이재훈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경배의 찬송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 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아 냇물과 저수지가 말랐고, 농가에서는 모내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가뭄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갈 라진 논바닥에 다시 물이 차오르고 햇볕은 들판에 다시 녹색의 물결이 넘실거리 게 해 주십시오. 시름 가득한 농부의 얼굴에 다시 웃음을 주십시오.

주님, 지난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을 보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 내 주십시오. 낙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또 한 명 의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영에 이끌려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그릇되고 부질없는 생각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영으 로 우리를 채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61:1,2 인도자
 ▲ 교 독 문 135. 성령강림(1)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김영호 장로
 2부 응 답 송 찬양대
 2부 찬 양 183. 빈들에 마른 풀같이 다 함께
 ▲ 성경봉독 시 51:7~12 1부:인도자/2부:서동우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다시 복음으로	마중물 찬양대
	II. 임재	청과 찬양대
말 씬	내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김기석 목사
거둬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p>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진정한 새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께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깨지고 상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p> <p>다 합 게 : 아멘. 그릇됨을 알고도 타성에 젖어 바르고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치유와 빛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마음을 굳게 지키며, 이 세상을 바르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p>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조항범	김정린	김재홍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